

자산 가치 마이너스 차량 증가 트레이드 차량 26% 차지, 84개월 대출도 증가

자동차 대출을 갚지 못하고 차량 가치보다 많은 빚을 지는 '언더워터(underwater)' 또는 '업사이드다운(upside down)'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신차 구매 시 중고차를 반납할 때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드먼즈에 따르면, 2분기 신차 구매를 위한 트레이드인 차량 가운데 26.6%가 마이너스 자산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분기(26.1%)보다 높으며,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이 비율이 더 높았던 시기는 2021년 1분기로, 당시 31.9%가 언더워터 상태였다.

단순히 비율만 문제가 아니다. 언더워터 대출 차량의 평균 마이너스 금액은 6,754달러로, 지난 분기(6,880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에드먼즈의 이반 드루리 인사이트 디렉터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표현했다.

■ 언더워터에 빠지는 이유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신차를 딜러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차량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장기 할부 선택이나 낮은 다운페이먼트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최근에는 84개월짜리 초장기 대출이 늘고 있다. 에드먼즈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신규 자동차 대출의 21.6%가 84개월 상환으로, 전분기(19.2%)보다 증가했다. 반면 72개월 대출은 같은 기간 38.6%에서 36.1%로 줄었다.

차를 계속 소유하고 운행한다면 마이너스 자산가치 자체가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량을 매각하거나 교체해야 할 때, 혹은 사고로 전손 처리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보험사는 차량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그보다 많으면 차주는 나머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 언더워터에서 신차 구매 방법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현재 차량을 계속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기존 빚을 새로운 대출로 떠넘기거나 현금을 추가로 지출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불가피하게 신차를 사야 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본인의 신용 점수를 확인해 금리와 조건을 예상해야 한다. 여러 은행과 대출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비교하면, 딜러가 이를 맞추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기존 대출 부채를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도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언더워터 위험은 남을 수 있

다. 이때는 '갭 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갭 보험은 사고로 차량이 전손될 경우 차량 가치와 대출 잔액 사이의 차액을 보장해준다. 충돌·종합보험에 추가할 경우 연간 약 20달러 수준의 보험료가 더 붙는다. 자동차 대출은 점점 더 장기화되고, 차량 가격과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많은 소비자가 언더워터 상태에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차 구매 시 재정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8월 전기차 판매 신기록 세액공제 종료 영향, 신차의 9.9% 차지

전기차(EV) 시장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폭스 오토모티브의 쉐리블루북 최신 통계에 따르면 8월 EV 판매량은 14만 6,332대로 집계됐다. 전체 신차 판매의 9.9%를 차지하며 7월의 9.1%에서 상승, 월 판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인 혜택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8월 EV 구매자는 평균 9,000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1년 전의 13.6%보다 확대됐다.

있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EV 판매 급증은 신제품 혁신, 적극적인 딜러, IRA 세액공제 종료로 앞둔 긴급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진=shutterstock

전문가들은 30일 연방 EV 세액공제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5년 3분기가 EV 판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록은 2024년 4분기의 36만 5,824대다.

가격도 함께 올랐다. 8월 EV 평균 거래가격은 5만 7,245달러로, 7월 수정치 5만 5,562달러보다 3.1%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하락해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다. EV 판매 급증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평균 거래

시장 1위 테슬라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압박이 커지고 있다. 8월 테슬라 평균 거래가격은 5만 4,468달러로 전달보다 2.9%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5% 낮았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6.7% 줄었고, EV 시장 점유율은 38%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폭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파니 발데즈 스트리티 수석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산업의 불변의 법칙은 '신차가 잘 팔린다'는 것이다. 테슬라 모델 Y의 업데이트가 하락세를 일부 완화했지만, 이제 시장은 신형 EV로 넘쳐나고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